

‘탈 영역화’ 하는 종교 출판 시장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행하는 <2007 출판연감>자료에 따르면 종교 도서의 발행종수는 2005년에 반짝 상승한 후 다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섰다. 신간 발행부수 현황은 2004년도 3백45만 부, 2005년도 4백89만 부, 2006년도 3백335만 부로 나타났고, 종별 발행종수 추이는 초판기준으로 2004년 1,181종, 2005년 2,032종, 2006년 1,749종으로 조사됐다. 종교 출판 시장은 기독교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 가톨릭, 기타 종교 순이다. 이 지면에서는 기독교 출판 시장과 불교 출판 시장을 위주로 특징과 흐름을 알아보았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베스트셀러를 내는 출판사만 성장, 기독교전문서점은 불황

2007년 현재 기독교출판협회에 가입한 출판사는 155개 사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입하지 않은 출판사와 일반 출판사까지 합하면 약 400개 사가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독교 서적은 크게 묵회, 선교, 영성, 교육, 문학, 어린이 및 청소년, 청년, 설교강해서, 주석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협회 회원사들이 지난 2006년에 발행한 신간은 약 1,000 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기독교 출판시장에서 눈에 드러나는 특징은 과거 기독교 출판시장은 독특하고 독자적인 영역이었다면, 단행본 출판사들이나 종합 출판사들이 종교 브랜드를 만들거나, 반대로 기독교 전문출판에서도 일반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발행 형태가 달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기본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편집방향을 내세운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올해 3월에 출간된 《내려놓음》은 종교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했고, 2005년 5월에 출간된 《공정의 힘》은 100만 부를 돌파하면서 ‘실천편, 직장인을 위한 성공편, 묵상편’ 이 출간되는 등 ‘공정의 힘’이라는 테마를 걸고 연이어 책들이 쏟아졌다. 변화와 성공에 이어 배려, 경청 등 인간적인 테마를 앞세운 자기계발서들이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려놓음》 《공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등 종교서들 역시 기독교를 믿는 신자가 아니어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책을 선택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웅진씽크빅 단행본그룹은 올해 기독교 브랜드 ‘도마의 길’을 만들고, 첫 책으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를 8월 중순에 출간했다. ‘도마의 길’ 책임편집자는 “종합출판을 지향하는 웅진은 기존 기독교 전문출판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틈새시장을 찾아 좀 더 복음을 쉽게 전달하려는 편집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출판사로서 종교시장의 진출은 웅진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김영사, 청림출판, 21세기북스 등 종합출판사들은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반대로 종교 서적만을 내던 전문출판사들도 종교만 고집하지 않고 점차 출판시장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란노가 문학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꽃샘’과 실용서를 출판하는 ‘비전과 리더십’을 임프린트화 했고, 규장은 ‘해피니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최승진 사무국장은 “이러한 기독교 출판시장의 변화는 아직 걸음마를 댄 수준”이라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걷어 내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중화시킬 경우에는 단어 하나를 번역할 때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을 앞세워 종교서적을 내는 출판사들이 상업성에 치중해 기존 출판사들이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 인세나 저작권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종교서적이 대중화되면서 기독교만을 취급하는 기독교 서점들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서점협회의회에 따르면 2005년 413개, 올해 403개로 기독교 전문서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협회 이규로 사무국장은 “협회 창립 30년 만에 최고 불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책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고, 성수기인 크리스마스와 여름성경학교 시즌의 매출이 예년보다 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교회마다 필수였던 여름성경학교는 이젠 선택사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서점이 어려워지니까 출판사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고 서점 관계자는 설명했다.

불교시장 어렵지만, 내용 다양화

국내에는 1,070만 명(2006년 5월 통계청 발표)의 불교신자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노령이고 여성 중심이라 불교 출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불교출판문화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불교출판 신간종수는 매년 300여 종 선이라고 한다. 불교서적 전문 출판사들은 인력 측면에서 봐도 규모가 영세하다. 15개 사가 회원으로 있는 불교출판문화협회 측은 “불교출판은 매년마다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불교서적 출판사가 영세해 기획력과 마케팅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출판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내용면에서 다양화됐다는 게 특징이다. 범정스님의 《무소유》, 틱낫한 스님의 《화》가 대표적이다. 출판사 등록 후 꾸준히 불교 서적을 출판해 오고 있는 김영사 종교출판 담당자는 “1984년도에 번역서인《불탈 세계》(절판)를 출판한 후 1년에 3~4종씩 종교 서적을 내고 있다. 초창기에는 불교 입문서들을 내다가 점차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서적을 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사에서 출간한 《성철스님의 시봉이야기》는 1·2권 합해 27만 5천 부가 팔렸다. 담당자는 “종교출판 시장은 다른 출판 시장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물에 초점을 맞춰 ‘에세이’ 형식을 빌려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불교가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어 일반인들도 불교문화를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다른 출판 영역의 비해서 불교출판은 약하다. 또 하나 불교출판에서 어린이 책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념적으로는 어린이 출판도 고려하고 있지만 자신이 없어 입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